

불자 세상보기



황재현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

얼마 전 한국양계농협의 가공공장에서 깨진 계란 등 버려야 할 불량계란이나 계란찌꺼기를 혼합한 전란액 및 계란 분말을 제조, 판매한 혐의도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지지분하고 비위생적인 공장내부 환경이 방출됐다.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식품원료는 주로 대기업 식품가공업체나 급식업체로 대량 유통되었다는 설명도 덧붙여 들을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뉴스나 기록보도 프로그램은 최근 끊이지 않고 접할 수 있으며, 그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며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일까?

농식품과 관련된 안전관리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수준에도 불구하고 개선 속도는 매우 느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우리 식탁의 먹거리

에 대한 관심이 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정·불량식품의 생산·유통·판매는 줄어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하면 부정·불량식품의 생산·유통·판매를 줄일 수 있을까?

양계유통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 계란시장은 가격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 시장이 된지 오래다.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대규모 생산농가도 존재하고 있으나, 영세한 규모의 생산농가도 다수 존재한다. 깨진 계란의 경우 식품위생과 안전성 측면에서 당연히 폐기되어야 하나, 치열한 가격경쟁 속에서 납품단가를 맞추기 위해 사용됐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위생과 안전성이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해 왔다. 식품위생과 안전문제를 우선시 하다보면 비용이 증가되어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품의 안전 및 위생문제를 등한시하게 되면 기업의 생존자체와 소비자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 급식을 통한 집단식중독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노약

자와 어린이(특히, 초·중·고·대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 피해 증상에 심각한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정, 불량식품 사고도 초등학교생 중심으로 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는데 그 심각성이 크다.

선진국들의 경우,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나 부정·불량식품을 생산·유통시킨 업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매운동이 매우 강력한 것을 볼 수 있다. 정부차원의 강력한 제발 방지 노력과 시민들의 불매운동이 더해져 식품의 안전관리문제는 기업에게 있어 비용의 개념이 아닌 마케팅과 판매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 사회도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단순히 관련업계의 자정능력만으로 제발 방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보다 강력한 수단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제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역시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관련 부처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적 관심을 통해 제도적 보

완을 유도하고 제도적 보완은 산·학·연이 참여하여 합리적인 시스템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유통, 수입, 판매와 관련된 법규의 강화도 필요하다. 식품 제조업체, 유통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식자재 원산지표기에 대한 기준도 엄격히 적용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혹 이러한 감독의 강화 기능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영세 농식품업체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배려도 필요할 것이다.

부정·불량식품의 근절은 그 사회의 기업윤리와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식품위생과 안전은 식품산업의 발전을 나타내는 척도일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건전성과 미래성장성을 나타내는 표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식품소비의 안전지대로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시급한 현안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해인사 방장 모시기에 네거티브라니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선출이 문종 간 '이 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 후보로 추대된 대원, 원각 스님 양측 추천위원회 간 제소와 폭로 등 상호 공방까지 이어져 감정의 골까지 깊어지고 있다.

백산당 원각 스님 해인총림 방장 추천위원회는 2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후보인 대원 스님과 원택, 선각 스님에 대한 의혹과 일련의 사전 선거 운동까지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상대편 추진위원장을 중앙선관위와 호법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제9대 해인총림 방장후보 학산대원 대중사추천위원회도 2월 25일 발표된 입장문을 통해 원각 스님 추천위가 제기한 문제를 해명·반박하며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합의 추대를 양측이 주장하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합의 추대의 분수령이 될 전국선원수좌회의 25일 회동이 불발로 그쳤기 때문이다.

해인총림의 최고 어른인 방장을 모시는

과정이 혼탁해지는 것에 대한 불교계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총림의 최고 권위이자 위엄인 방장마저도 완장이 되는 세상이 됐다", "각 후보를 지지하는 사중 스님들의 폭로와 대립의 구도를 해인사는 과연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라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사회는 종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 이는 최근 한국갤럽이 발간한 <한국인의 종교 1984~2014>를 보면 잘 나타난다. 한국인의 68%는 현재 종교가 진리보다는 교세 확장에 관심이 있고, 63%는 종교가 본래의 뜻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수행자·성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1984년 65%에서 2000년 이후 90% 이상을 상회하며 점점을 찍었다.

상호 비난이 난무하는 해인총림 방장 선출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어떨까. 위의 통계 자료가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정말 불교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양측 후보 진영 모두 잘 살피길 바란다.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에 거는 기대

한국 사회는 현재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다. 서로에 대한 반목과 불신은 이미 사회에 만연해 있다. 이는 자신의 자리에서 본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7대 종교 모임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이하 KCRP)가 2월 25일 건강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종교인들의 자성과 참회를 촉구하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선포했다. '답게'는 사람답게, 종교인답게, 사회인답게 공공을 위해 이바지하겠다는 정언적 각오이다.

7대 종단 평신도들이 주축이 돼 꾸러가는 이번 운동은 4월까지 추진본부가 구성되면 본격 확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이 등장하게 된 데는 최근 사회에 불신과 갈등, 분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일어난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 모두가 제각기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이어지

면서 종교인들부터 각자 자리에서 본분을 지키자는 의미로 기획됐다.

특히 이번 운동이 눈길을 끄는 것은 스님, 목사, 신부가 아닌 일반 신도들을 중심으로 운동이 전개된다는 점이다.

KCRP는 4월 초 범종교 신도 대표 1백여 명이 모여 운동 전개 방향을 고민하는 세미나를 개최한 후 4월 30일 '답게살기 운동본부'를 정식으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곧 <임제록>의 '수처자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과 맞닿아 있다.

'어느 장소에서든지 주인이 될 수 있다면 모든 곳이 참된 곳'이라는 이 경우는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다. '답게 살기'는 곧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종교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발언대

종교, 이제 '시민 공공성'을 생각할 때



윤승웅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

2014년 4월 한국갤럽(회장 박무익)은 전국(제주도 제외)의 만 19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에 관해서 다섯 번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 보고서에는 종교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 정책을 개발하고, 각 종교의 자기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한국의 종교문화 흐름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1984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30년간 한국의 종교 실태와 의식의 변화를 추적해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종교인의 비율을 종교별로 살펴보면, 불교인 22%, 개신교인 21%, 천주교인 7%, 비종교인 50%로 나타났다. 현재 종교인구의 지형은 불교는 감소 추세, 개신교와 천주교는 정체 상태로 요약된다. 10년 전에는 불교가 약진 추세, 개신교

는 정체, 천주교는 감소 추세였다. 불교 인구만 약진에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종교의 비중이 대폭 하락하고 있으며, 의례의 참여율도 개신교인을 제외하고는 크게 하락하고 있다. 반면에 최근 10년 전보다 종교인이 내면적인 종교 경험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개인의 종교성은 증가하는데 비해, 실제 제도화된 종교에 대한 참여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종교적 참여가 개신교인에게는 더 강화되고 있으며, 천주교인은 중간이며, 불교인은 비종교인에 가깝게 접근하고 있다. 요컨대 개신교는 종교조직의 뱀바침을 중시하는 경성종교(硬性宗教)로, 불교는 일반 문화에 스며드는 연성종교(軟性宗教)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난 30년간 '감소하고 있다'는 응답은 계속 증가하였다. 더불어 종교적 덕목 실천에 대한 긍정률도 크게 감소하였다. 종교의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0%를 넘어서고 있지만, 종교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이런 응답은 종교에 대해서 긍정적

이나, 현실의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기존의 종교단체가 종교에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 한국 종교계는 종교 내외에서 불어 닳던 부정적 여론에 힘써 대처해야 하는 수성(守成)의 종교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양적 성장(成長)에 길들여진 기존 종교가 이제는 자기 정체성을 강화하고 내부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밖에 없는 종교 개혁과 쇄신의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런 쇄신이 없이 개신교처럼 자기의 정체성만을 강화하면 외부 집단과는 거리를 두게 되고 이질성만을 내세워 사회와의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 종교문화의 성숙은커녕 종교가 자기 집단 이익을 위해 각자도생(各自圖生)할 가능성이 많다. 이 같은 부정적인 전망을 극복하고 한국 종교의 미래를 밝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 종교의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

향후 한국종교에서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는 점을 몇 가지 언급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기존 종교에서 탈근대의 영성적 종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로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종교가 더 개인 신앙화되고 영성종교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 모든 종교가 자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의 뽀빠뽀뽀 종교로만 지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 세속 사회에 대한 '대안적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데 더욱 많은 노력이 기울여질 것이다. 종교는 항상 더불어 사는 새로운 삶의 양식들을 만들어 왔다. 한국 종교도 그런 방향에서 예외가 아닐 것이다.

끝으로 시민의 구체적인 삶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민적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 진행되고 있는 개인의 종교성 강화경향, 그리고 제도화된 종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더 이상 종교가 폐쇄 영역에만 안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종교적 활동이 인권, 환경, 복지, 문화, 통일과 같은 세속의 공공영역에까지 확산되어야 한다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은 한국종교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353호에 실린 것으로 저자의 허락을 받아 발췌·수록했습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용 연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지사안내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썩뎠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뎠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뒹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썩뎠(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배대를 하여도 화상 및 뒹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서냉
*오심건,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허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리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심건조기, 오추베개등 자매품다양)